

# 올 경매시장 아파트 품귀현상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법원경매시장은 아파트 등 주거용부동산의 낙찰 물건이 크게 감소한 반면 상가나 공장 등 영업용부동산은 낙찰건수가 급증하는 등 용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매정보업체 굿스센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에서 낙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은 1천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692건)에 비해 51.2%(1천379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광주는 올해 아파트가 697건이 낙찰돼 지난해(1천340건)보다 48.0%(643건) 줄었다. 전남도 지난해보다 54.4%(736건)나 줄어든 616건이 낙찰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낙찰물건이 감소한 것은 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와 부동산 가

## 집값 상승에 은행 담보 대출 문턱 높아 광주·전남 낙찰건수 작년보다 51% 급감

격 상승에 따른 담보여력 상승 등의 여파로 경매 물건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 물건에 대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과 입찰경쟁률 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전남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7%로, 지난해(75%)보다 12%나 상승했다. 입찰자도 건당 평균 4.52명에 달하면서 지난해(2.34명)의 두 배 가량 늘었다. 광주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85%에 달했으며, 평균 입찰자도 6.57명을 기록할 만큼 경매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최근 경매에 부처진 아파트가 급감한 데다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까지 대거 경매시장으로 몰리면서 일부 물건의 낙찰가가 감정가 수준으로 치솟는 등 과열현상마저 빚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은 올해 상가나 공장 등 영업용부동산을 중심으로 낙찰건수와 낙찰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기 물건인 아파트의 경매건수가 줄어들면서 상당수 투자

자들이 영업용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낙찰된 상가나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은 총 1천52건으로, 지난해(982건)보다 7.1%(70건) 늘었다. 용도별로는 근린상가가 357건으로, 지난해보다 40%(102건) 증가했으며, 공장은 152건이 낙찰돼 1년새 6.3%(9건)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 전남은 올해 농지의 낙찰건수가 3천606건에 달하면서 지난해(2천911건)에 비해 23.9%(695건) 증가했다. 또 이들 물건의 낙찰가율도 83%로 1년새 4% 상승하는 등 나주공동혁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농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5대 거품빼기' 법개정 촉구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가 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삼복서점 앞에서 '5대 거품빼기'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기금값, 이통통신료, 은행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 약값 등을 '서민경제 위협 5대 공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거품빼기에 나섰다. /위경지기자 jrvi@kwangju.co.kr

## “현대·기아차 가족경영이 경쟁력엔 毒”

美 자동차산업 전문분석사 J.D.파워 회장 지적

미국 자동차산업 전문분석기관인 제이디파워(J.D. Power & Associates)의 창업주 제임스 데이브 파워 3세 회장은 7일 현대·기아차 동차의 가족 중심 경영구조가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가 개최하는 '부품·소재 국제포럼 2007'에 참석중인 파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단계 도약하려면 가족과 친인척으로 구성된 현 경영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며 이같이 지적했다.

파워 회장은 가족경영과 기업경쟁력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미국 포드사와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예로 들었다. 그는 “포드사의 경우 과거 오너 일가가 의사결정권을 소유하는 바람에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으나 도요타는 창업주 일가가 경영을 좌우하기보다는 시장에 정통한 전문 경영진을 기용,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그룹이 한국 자동

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산업 전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파워 회장은 또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로 노사관계도 지적했다. 그는 “1950~60년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노조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임금 및 보너스 인상을 요구했다”며 “미국 시장내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던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3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임금 상승분을 제품가격 인상으로 메웠고 그 결과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올 김장비용 21만 9,590원

배추·무 값 크게 올라  
작년보다 21% 상승

올해 배추와 무 값이 크게 오르면서 김장비용이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6일 서울시내 재래시장에서 배추와 무 등 15개 김장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재료를 이용할 경우 4인 가족기준 김장비용이 21만9천590원으로 지난해 18만890원보다 21.4%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배추는 2.5kg짜리 1포기에 3천 500원으로 작년 1천300원보다 169.2%나 올랐고 무도 1개에 2

천원으로 작년 800원에서 150% 올랐다. 알타리무와 대파 가격은 한단당 2천500원씩으로 작년보다 각각 66.7%, 56.3% 뛰었다. 갖도 400g짜기 한단당 1천500원보다 33.3% 오른 2천원이었다.

전남도는 무·배추의 생육후기 비배관리와 병해충 적기방제 등을 통해 단위수확량을 높이는 한편 재배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주산지 시·군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연계, 수급조절을 위한 계약재배 약정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해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작

외환銀 2.7~3.4%로 낮춰

외환은행을 필두로 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사들이 함께 추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5일(전표매입일 기준)부터 일반가맹점과 체크카드에

대해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일반 가맹점은 기존 2.7~4.5%에서 2.7~3.4%로 낮췄다.

체크카드는 2.0%로 일괄 적용한다. 비씨·신한·KB·현대·롯데·삼성카드 등 여타 카드사들도 이달 중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는 것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진행 중이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비씨·신한·KB·삼성카드는 2.0~2.2% 사이의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고 현대·롯데카드는 평균 2.1~2.3%로 조정한다. /연합뉴스

## 기아차 대형 SUV

‘모하비’ 전격 공개



기아자동차(주)가 지금껏 베일에 쌓여 있던 프리미엄급 대형 SUV ‘모하비(Mohave)’의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기아차가 모하비를 공개한 것은 지난 7월 모하비의 스케치와 9월 실물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모하비의 정측면 사진을 공개, 전반적인 디자인이 드러났다.

내년 1월 선보일 모하비는 기아차 디자인 총괄 책임자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의 디자인 철학인 ‘직선의 단

순화’가 양산차로는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로, 역동적이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것이 디자인 특징이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모하비는 내년 6월에 보레고(Borrego)라는 차명으로 북미시장에 진출한다. 북미시장에 투입되는 모하비는 V6 엔진 외에 기아차 최초로 V8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금호폴리캠, 동아산기

## 올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산업자원부는 품질혁신과 고객만족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63개 기업을 ‘2007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대기업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과 금호폴리캠, 중소기업으로는 하남산단내 동아산기가 선정됐다. 전기·전자분야에서는 품질관리의 범위를 ‘성능’ 위주에서 ‘고객사용 편

의성’까지 확대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를 비롯해 10개 기업이, 기계·금속 분야에서는 지속적 품질경영 혁신을 펼친 현대엘리베이터 등 21개사가 뽑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0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화학분야 선정기업은 금호폴리캠 등 11개였고, 공기업으로서는 한원원 자력연료 등 12개가 명단에 올랐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밀수·가짜 담배 팔면  
6개월까지 영업정지

앞으로 담배소매인이 밀수 담배나 위조 담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

장 6개월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출연 종료일을 11월 30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위조·밀수·도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시 3개월, 2차 위반시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광주상의 회장 보선 경선구도로

이승기씨 후보 등록

오는 12일로 예정된 광주상공회의소 추임회장 보궐선거에 박흥석(63) 광주상의 회장직무대행에 이어 이승기(57·삼남건설 대표) 상임의원이 7일 회장후보 등록을 했다.

이 의원은 광주이고, 서울대 공대를 나왔다. 후보등록시한인 8일 오후 6시를 앞두고 현재까지 2명의 후보가 등록함으로써, 이번 보궐선거는 추대

방식이 아니라 경선을 거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42명의 상공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추임회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A상공의원은 “정경당당한 경선도 아름답지만, 그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상의의 행보를 감안할 때 추대방식이 최선 이었는데 불발 가능성이 높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지속되는 유가 현금 특돈 할인** → **겨울 난방 고민 끝~**

**초절전형 냉난방기** **한자!**

무로 구입 **80%** 할인

무이자 12개월 분할 상환 가능

080-372-2900

**증가집 설령탕**

**확장이전**

오랫동안 명품에 삼남지역에 증가집의 설령탕이 존엄한 고가 향유를 서비스해오던 중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며 오고 있습니다.

【특약】 설령탕, 도가니탕, 도가니탕, 설령수탕, 도가니탕, 도가니탕

증가집 설령탕 **예약전화 062)374-0015**